

# 영어의 동사성 복합어 연구\*

홍 기 선

## 1. 서 론

영어의 복합어는 크게 어근복합어(root compounds)와 합성적/동사성 복합어(synthetic/verbal compounds)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자는 (1a)의 예처럼 단순히 두 개 이상의 어간이나 단어가 연결되어 형성된 단어를 가리키며, 후자는 (1b)처럼 동사의 파생형이 핵(head)이 되고, 그 동사의 논항이나 부가어가 비핵(non-head)으로 연결된 단어를 가리킨다. 여기서 동사의 파생형이란 주로 행위자를 의미하는 “-er”, 동명사나 현재 분사형을 만드는 “-ing”, 그리고 과거분사형을 만드는 “-ed” 등의 접미사가 붙은 경우를 일컫는다.

- (1) a. erythrocyte, houseboat, blackbird, overcoat, swearwood, bird-brained, well-formed, off-white, overlook
- b. truck driver, moth-eaten, fast-acting, pan-fried

이 중 후자의 동사성 복합어는 특히 문장의 서술어로 나타나는 동사와의 비교를 위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Roeper and Siegel (1978), Selkirk (1982), Lieber (1983), Fabb (1984), Sproat (1985) 등). 그것은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든지 복합어의 핵으로 나타나든지에 상관없이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의 수와 종류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연구들은 주로 이런 형태가 어휘부에서 형성되는 것인지 통사부에서 일반동사와 같은 원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무 논의없이 어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지만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본고의 논지와 근본적인 관계는 없다.

본고는 논항구조이론(argument structure theory)의 관점에서 동사성 복합어를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관심은 어떤 요소들이 이 구조의 비핵으

\* 이 연구는 1993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포함제철 학술연구비(No. 93-15-1113)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자료연구를 도와준 Alice Kim과 Koren Murph에게 감사드린다.

로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어휘론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주요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 보고, 3장에서는 논항구조이론의 틀 내에서 가장 제한적인 설명을 제시한 Grimshaw (1990)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4장에서는 여러 자료에 비추어 Grimshaw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기존연구개관

Roeper and Siegel (1978)은 모든 동사성 합성어는 동사의 제1자매(first sister) 위치에 있는 단어를 편입(incorporation)하여 만든다는 제1자매원리(First Sister Principle)를 제안했다. 제1자매 위치란 동사구에서 동사 바로 뒤의 위치를 말하는데 이 원리는 첫째, 주어를 편입될 수 있는 요소로부터 제외시키고 둘째, 직접목적어가 어떤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 (2)와 같은 대비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 (2) a. quick-fried (fry quickly)  
 b. \*quick-driver (drive a truck quickly)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이 수형도에 의한 설명은 소위 비대격구문(unaccusative construction)의 주어가 복합어의 비핵이 될 수 없음은 올바르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비대격구문의 주어도 일반적으로 동사의 제1자매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Selkirk (1982)는 동사성 복합어를 비핵이 동사의 논항인 경우로만 제한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한했다.

- (3) 1순위 투사조건(First Order Projection Condition)  
 어휘범주 X<sub>i</sub>의 모든 비주어논항(non-SUBJ argument)은 X<sub>i</sub>의 1순위 투사내에서 만족되어야 한다. (Selkirk 1982: 37)

이는 합성어 핵의 모든 비주어논항은 그 핵을 직접 지배하는 합성어 안에서 만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전상범 1995: 401). 즉, 핵은 모든 비핵 요소들을 성분통제(c-command)해야 하므로 모든 논항은 반드시 복합어 안에 실현되어야지 밖에 나타날 수 없다. 예를 들어 “the putting of cats in the well” 같이 논항이 두 개 있을 경우 (4)의 어느 쪽도 복합어로 가능하지 않다.

- (4) a. \*cat putting (in the well)  
 b. \*well putting (of cats)

(3)의 조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Selkirk는 어휘항목의 주어논항은 합성어의 구조 안에서 만족될 수 없다는 주어 조건을 독립적 근거없이 별개의 조건으로 제시한다(Selkirk 1982: 34). 주어라는 개념에 대해 특별한 설명은 없으나 그가 변형을 가정하지 않는 어휘기능문법(LFG) 틀에 기대고 있고 “\*weather changing” 등의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미루어 비대격구문의 주어도 비핵이 될 수 없다고 예측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Lieber (1983)은 Roeper and Siegel (1978)처럼 논항 뿐 아니라 부가어가 복합어의 비핵으로 실현된 경우도 포함시키고, 성분구조(constituent structure)나 문법기능(grammatical function)에 의존하는 앞의 두 연구와는 달리 논항구조와 주제역할(thematic roles)에 의해 동사성 복합어를 설명하려 했다. 그의 논항연결원리(Argument Linking Principle)(Lieber 1983: 258)는 동사가 이분지로 된 수형도에서 어떤 요소와 자매관계로 나타나면 모든 내부논항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결되지 않는 요소는 의미적 논항(semantic arguments)－장소(Locative), 방법(Manner), 행위자(Agent), 도구(Instrumental), 수혜자(Benefactive) 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어 말할 수 있다(전상범 1995: 453). 이 원리는 Roeper and Siegel (1978)이 제안했던 원리처럼 주어를 처음부터 복합어 형성에서 제외시키게 되며, 비대격구문의 주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 의상 그 경우도 복합어의 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i Sciullo and Williams (1987)도 논항구조의 개념을 도입하여 내부논항구조는 제1투사범주(the first projection)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리를 제시한다.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이 비핵이 될 수 없는 것은 외부논항은 최대투사범주(maximal projection)에 의하여 부여되는데 복합어는 그 내부에 최대투사범주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내부논항구조원리와 외부논항에 관한 설명은 각각 Selkirk의 제1순위 투사조건과 주어 조건에 비교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비대격구문의 주어가 복합어의 비핵이 될 가능성을 남겨놓게 된다.

Selkirk를 제외한 위의 연구들은 상기한 대로 비대격구문의 주어가 비핵이 될 수 없음을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Selkirk의 연구는 주어를 원소적(primitive)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어조건을 독립적인 근거없이 제시했다는 점이 그 이론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항구조이론을 최대한으로 적용해 본 Grimshaw (1990)의 이론을 살펴 보기로 한다.

### 3. Grimshaw (1990)의 분석과 그 비판

Grimshaw (1990)의 논항구조는 논항의 수를 명시할 뿐 아니라 그들간의 탁월도(prominence)에 의한 상호순서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여타 이론들과 다르다. 탁월도는 다음 두 개의 독립적인 층위의 정보에 의해 결정되며, 두 층위 모두에서 그 순위가 가장 높은 논항을 외부논항이라 한다.

(5) 주제층위(Thematic Dimension)

(행위자 Agent (경험자 Experiencer (도달점 Goal/출발점 Source/장소 Location (주제 Theme))))

(6) 상적층위(Aspectual Dimension)

(사동주 Causer (비사동주 (Non-Causer))) (G 1990: 24)

동사성 복합어의 핵은 동사의 논항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비핵은 핵에 의해 주제역할이 표시된다. Grimshaw는 복합어 구조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째, 비핵은 위의 탁월도 순위에서 가장 하위의 것부터 차례대로 복합어에 편입되어야 한다. (7)의 give처럼 내부논항이 두 개—주제와 도달점—인 경우 (7a)는 그중 탁월도가 낮은 gift가 복합어의 비핵으로 편입이 되고 그보다 높은 children이 복합어 외부에 남아 있으므로 문법적인데 비해, (7b)는 children이 gifts보다 먼저 복합어에 편입되었으므로 비문법적이다. (8)과 (9)에도 같은 설명이 적용된다.<sup>1</sup>

(7) a. gift-giving to children

b. \*children-giving of gifts

(8) a. flower-arranging in vases

b. \*vase-arranging of flowers

(9) a. cookie-baking for children

b. \*children-baking of cookies (G 1990: 14-15)

탁월도 순위를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이는 (5), (6) 양쪽을 모두 만족시켜

<sup>1</sup> 이 예들은 (4)에서 이미 보았듯이 Selkirk를 비롯한 기존의 연구들은 (a), (b) 모두 비문법적이라고 주장했던 예들이다. 그러나 Grimshaw 자신이 주석(175, ft. 7)에서 밝히고 있듯이, (a), (b) 사이에는 큰 문법성의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문법성의 정도는 의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듯하다. gift-giving to children에 비해 book-giving to children이나 cat-giving to children은 훨씬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을 볼 때 give라는 동사의 의미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목적어가 비핵화되었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Selkirk의 예에서 cat-putting이나 well-putting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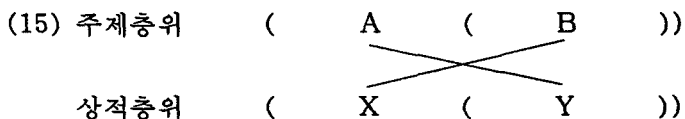
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의 두 문장에서 fear와 frighten은 모두 (경험자 (주제))란 논항구조를 가지는데 주어, 목적어의 실현은 반대로 나타난다. Grimshaw는 이를 전자는 경험자가 사동주이고 주제는 비사동주인데, 후자는 이것이 반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이론에서 문장의 주어는 실제로 상적층위의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sup>2</sup>

- (10) a. A man fears god.
- b. God frightens a man.

이로써 복합어를 설명하면 (11a)에서는 주제이며 비사동주인 god이 복합어의 비핵이 된 데 비해 이보다 양 층위에서 모두 탁월도가 높은 경험자이며 사동주인 a man이 비핵으로 편입된 (11b)는 비문법적이다. (12)도 같이 설명된다. 그러나 (13)에서는 a, b가 모두 비문법적인데 (13a)의 a man은 비사동주이나 경험자이고 (13b)의 god은 주제이나 사동주로 양 층위 모두에서 가장 낮지는 않기 때문이다.<sup>3</sup> (14)도 마찬가지이다(G 1990: 25).

- (11) a. a god-fearing man
  - b. \*a man-fearing god
  - (12) a. a fun-loving teenager
  - b. \*a teenager-loving fun
  - (13) a. \*a man-frightening god
  - b. \*a god-frightening man
  - (14) a. \*a parent-appalling exploit
  - b. \*an exploit-appalling parent
- (G 1990: 15)

즉, (15)처럼 하나의 논항이 주제층위와 상적층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떤 형태의 동사성복합어도 가능하지 않다.



<sup>2</sup>이 정의에 따르면 fear는 두 층위에서 모두 탁월한 논항, 즉 외부논항이 있고 frighten은 외부논항이 없고 내부논항만 두 개 있다. 뒤에 논하듯이 비대격동사도 내부논항만 갖는 경우로 분석되나 frighten은 D-structure에서 주어를 갖고 비대격동사는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경우는 엄격히 구별된다고 한다(G 1990: 36).

<sup>3</sup>(13a)와 (14a)는 (26), (27)에서 보듯이 필자의 informant들에 의해서는 문법적이라 판명되는 예들이다.

둘째, 복합어의 핵은 항상 불포화(unsaturated)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첫째 조건과 함께 적용될 때 Selkirk의 주어조건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16)과 같은 예는 첫째 조건만으로도 설명이 된다.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탁월도 순위가 낮은 내부논항이 비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째 조건은 논항이 하나 있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는데 둘째 조건에 의해 그런 경우도 비문법적인 것으로 예측이 된다. (17)처럼 외부논항만 하나 갖는 비능격동사(nergatives)나 (18)처럼 내부논항만 하나 갖는 비대격동사 모두 불포화 조건을 어기므로 그 논항은 비핵이 될 수 없다.

- (16) a. flower-arranging by novices  
 b. \*novice-arranging of flowers
- (17) a. \*girl-swimming  
 b. \*kid-eating
- (18) a. \*leaf-falling  
 b. \*glass-breaking (G 1990: 17)

이런 Grimshaw의 이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 이론은 논항이 한 개인 비대격동사들의 경우 복합어를 구성할 수 없음을 올바르게 예측한다. 그러나 논항을 두 개 갖는 비대격동사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전체이론에 비추어 보면 첫째 조건인 탁월도 순위에 따라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제와 도달점 두 논항을 갖는 동사의 경우에는 주제가 비핵이 된 경우만 문법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이다. (19)~(23)의 예를 보면 예측과 달리 도달점이 비핵이 되고 주제는 비핵이 될 수 없다.<sup>4</sup>

- (19) a. \*train-arriving station  
 b. station-arriving train
- (20) a. \*an experience-lasting lifetime  
 b. a lifetime-lasting experience
- (21) a. \*a man-staying room  
 b. a room-staying man

<sup>4</sup> 이 일반화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발견된다. (19)~(23)과 아래 예문에서는 복합어가 명사의 한정적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문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데 현재로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은 없다.

- (1) a. a water-leaking bucket  
 b. \*a bucket-leaking water

- (22) a. \*vessel-going Thames
- b. Thames-going vessels
- (23) a. \*charter service-based Atlanta
- b. Atlanta-based charter service

둘째, Grimshaw 이론에서 frighten은 (13)에서 보았듯이 (24a)와 같은 논항구조를 가지므로 복합어를 전혀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25)와 같은 예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24b)의 논항구조를 가지는 또 하나의 frighten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G 1990: 122). 이런 frighten은 일반 타동사와 같은 복합어 구성을 보일 것이다.

- (24) a. (경험자           (주제))  
          비사동주       사동주
- b. (행위자           (경험자))  
          사동주       비사동주
- (25) a. children-frightening grandfather  
          ("Grandfather frightens children.")
- b. \*grandfather-frightening children

그러나 Grimshaw의 주장과는 달리 사동주가 무생물일 경우도 생물일 때와 같은 복합어 구성을 보인다. 즉, 경험자가 비핵이 되는 경우만 허용되는데 그렇다면 fear와 차이가 없게 된다.

- (26) a. children-frightening thunder ("Thunder frightens children.")
- b. \*thunder-frightening children
- (27) a. children-frightening movie
- b. \*movie-frightening children

셋째, fear와 frighten의 구별은 Grimshaw 이론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Grimshaw는 전자는 경험자가 사동주인 상태동사이고 후자는 경험자가 비사동주인 비상태동사라고 한다. 그런데 Grimshaw 자신이 지적하고 있듯이 세번째 유형의 동사군이 있는데 (28), (29)의 please나 concern처럼 경험자가 비사동주인 상태동사이다.

- (28) a. The weather pleases children.
- b. \*The weather is pleasing children.
- (29) a. The regulation concerns everybody.
- b. \*The regulation is concerning everybody.

이 경우 Grimshaw는 단정짓지는 않지만 frighten과 마찬가지로 두 층위의 정보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함으로써 복합어 형성이 불가능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내리는데(G 1990: 30), 이 예측은 어긋난다. (30)~(32)에서 보듯이 fear와 마찬가지로 경험자만 비핵이 될 수 있다.

- (30) a. children-pleasing weather
- b. \*weather-pleasing children
- (31) a. a mother-pleasing baby
- b. \*a baby-pleasing mother
- (32) a. a students-concerning regulation
- b. \*regulation-concerning students

넷째, Grimshaw 이론에 제일 먼저 반례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33a)와 같은 예들이다. 이는 (33b)가 보여주듯이 행위자가 복합어의 비핵이 된 것으로 비문법적이라고 예측된다(G 1990: 128).

- (33) a.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 b. This research i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이 문제에 대하여 Grimshaw는 이런 동사들은 동사적 수동태(verbal passive)가 아니라 형용사적 수동태(adjectival passive)인데 그 중에서도 동사적 수동태로부터 전이된 것이 아니라 대응되는 동사적 수동태가 없이 바로 동사에서 만들어진 경우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논항은 탁월도 순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by가 이끄는 구는 내부논항이라고 설명한다(G 1990: 113). Grimshaw가 제시하는 이 동사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34) a. “un-”처럼 일반적으로 형용사에 붙는 부정접두사를 붙일 수 있다.
  - b. 진행형으로 만들 수 없다.
  - c. “remain”같은 동사의 보어로 쓰일 수 있다.
  - d. 대체로 여러 가지의 전치사와 공기할 수 있다. (G 1990: 113)
  - e. by구의 의미는 비행위자적, 총칭적(generic)이다.
- (G 1990: 127)
- f. follow 같은 상태동사인 경우는 by구가 필수적이며 frighten같은 사역심리동사인 경우는 수의적이다. (G 1990: 128-129)

그러나 Grimshaw 자신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보는 동사들 중 (34)의 설명에 맞지 않는 예들이 발견된다. (35)의 (a)처럼 “un-”이 붙을 수 없거나 (b)처럼 진행형이 가능하고 (c)처럼 by구가 필수적이 아닌 동사들이 그것이다.



- (35) a. \*/?undepressed, \*/?unpreoccupied  
 b. being concerned/preoccupied/sponsored  
 c. untouched (Everything remained untouched.)  
 sponsored (We got sponsored.)  
 followed (I'm being followed.)  
 surrounded, uninhabited, unexplained, melted, frozen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들은 (36)에 예시된 것 이외에도 많이 발견되는데 Grimshaw가 예시한 특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이들 대부분이 타동사로부터 전이된 것이고, by구의 의미가 명백하게 행위자적인 것들이 있다(예: eaten, made, infiltrated, assisted, governed, elected, imposed 등). 이런 사실은 이들 동사들이 “intentionally” 등의 부사와 공기할 수 있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36) moth-eaten, man-made, god-begotten, god-forbidden,  
 god-forsaken, communist-infiltrated, government-owned,  
 all-admired, government-funded, doctor-assisted,  
 power-driven, wind-driven, storm-beaten, sun-baked,  
 sun-dried, computer-altered, self-appointed, self-elected,  
 self-governed, self-possessed, self-imposed

이들 중 (37)에 열거한 동사들은 “un-”이 붙을 수 없고 (38)의 동사들은 진행형이 가능하다.

- (37) \*unbegotten, \*unappointed (not appointed의 의미로),  
 \*unmandated, \*undominated, ?unforbidden, ?unabhorred, ?undriven  
 (38) being eaten/made/infiltrated/assisted/funded/driven/beaten/baked  
 /dried/altere/d/appointed/elected/governed/imposed

또한 이들 대부분의 원형이 타동사이므로 다른 타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문장에서나 복합어에서 by구가 필수적이지 않다. 의미적으로도 (39)에 보듯이 총칭적이지 아닌 개별적인 의미도 자유로이 가질 수 있다.

- (39) the Trump-owned Casino, the Sally-made clothing,  
 the Clinton-owned island, the Soviet-backed ruling party,  
 Muslim-led Bosnian government units,  
 the U.N.-mandated no-fly zone, the Dole-ruled party,  
 the GM-dominated market place,  
 an U.N. Security Council-backed special inspection

#### 4. 상적자질에 근거한 새 제안

3장에서 살펴 본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위 표면구조에서 주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비핵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일반타동사의 주어(예: (40)), 비능격동사와 논항을 하나 택하는 비대격동사의 주어(예: (41)), fear, frighten, please 세 가지 다른 부류의 심리동사들의 주어(예: (42), (43)), 논항을 두 개 택하는 비대격동사의 주어(예: (42))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내부논항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주제역 할간의 상호순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예: (45)), 셋째, 핵이 “-ed” 형태 일 때는 행위자도 비핵이 될 수 있다(예: (46)).

- (40) \*novice-arranging of flowers
- (41) \*girl-swimming, \*leaf-falling
- (42) a. a god-fearing man  
b. \*a man-fearing god
- (43) a. children-frightening thunder  
b. \*thunder-frightening children
- (44) a. a station-arriving train  
b. \*a train-arriving station
- (45) a. gift-giving to children  
b. \*children-giving of gifts
- (46) the Trump-owned Casino

이런 일반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 목적어 등의 문법기능에 의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법기능을 원소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통사이론 틀에서는 그런 설명이 본질적인 설명이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Grimshaw의 논항구조 이론 내에서 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의하여 설명해 보려하는데, 설명의 편의상 논항들을 가리킬 때 주어, 목적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들은 모두 표면구조상의 주어, 목적어를 가리킨다.

본고는 동사성 복합어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제안한다. 첫째, 동사성 복합어의 핵은 반드시 불포화되어야 한다.<sup>5</sup> 둘째, 비핵은 상적층위의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조건은 Grimshaw가 제안했던 것으로 위의 (41)처럼

<sup>5</sup>이 조건은 현대영어로 오면서 강화된 조건인 듯하다.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예들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 (1) (중세) sun-rising, cock-crowning  
(15세기) cock-fighting, earthquaking, sun-setting  
(16세기) sun-burning, heart-burning

논항이 하나인 경우 복합어 구성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조건은 상적층위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서 주제층위와 상적층위 양쪽의 순서가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본 Grimshaw와 다르다. 더 나아가 Grimshaw는 (6)에서 보았듯이 상적층위의 정보를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는데((47)에 반복), 본고는 이를 더 세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7) 상적층위(Aspectual Dimension)

(사동주 Causer (비사동주 (Non-Causer)))

(47)의 구분은 (40)~(46)에서 본 (48)의 대비들을 동시에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 (48) a. 타동사(arrange)와 심리사역동사(frighten)의 주어와 기타논항
- b. 심리상태동사(fear, please)의 주어와 기타논항
- c. 비대격동사(arrive)의 주어와 기타논항
- d. 내부논항이 두 개인 동사(give)의 비주제역과 주제역

Grimshaw는 이 중 (a)는 사동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b)는 원래 개념상으로는 상태동사가 사동주를 가질 수 없지만 설명을 위해서 주어를 사동주라 규정(stipulation)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G 1990: 27), (c)와 (d)는 둘 다 사동주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고는 두 가지 개념을 제안하여 상적정보를 세분하려 한다. 하나는 “결정자(Determinant)”란 개념인데 이는 “하나의 사건이나 상태가 시작될지 아닐지를 결정짓고 통제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된다(Hong 1991: 101).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책임자(Responsibility)” (C. Lee (1973), K. Lee (1987), Farkas (1988), Song (1988))나 “통제자(Controller)” (Klaiman (1988)) 등이 이미 제안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기존 개념들과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로 한다.<sup>6</sup> 이 정의에 따르면 보통 비상태동사에만 적용되는 사동주가 가장 전형적인 결정자가 될 것이며, 상태성에 관계없이 타자에게 어떤 심리상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please, frighten의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fear같은 심리상태동사의 경우 그 상태에 대해 어떤 논항이 더 통제력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히 경험자일 것이다. 통제력을 가졌음은 “Do not

<sup>6</sup>이 개념을 기존의 의미를 확대하여 “사동주”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널리 인정되는 정의가 있으므로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는 Dowty (1991)를 따라 행위자 원형(Agent Proto-role)이라 부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널리 인정되는 “행위자”와 오해될 수 있어 쓰지 않는다.

fear!”나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처럼 명령문이 가능한 데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격동사의 주어도 포함되는데 van Oosten (1977)이 주장했듯이 (49)의 두 문장은 의미적으로 매우 다른데 (49a)는 반드시 그런 움직임을 불러일으킨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데 (49b)는 주어의 지시물 그 자체에 내부적인 결함으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따라서 “of its own accord” 등의 부사표현과 자연스럽게 같이 쓰일 수 있다.

(49) a. The boat was sunk.

b. The boat sank.

이 예가 보여주는 것은 비대격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은 그 주어의 지시물이 결정자가 된다는 것이다. 비대격동사의 주어가 대체로 스스로 움직이거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물을 지시하고, 다른 논항은 대체로 그런 변화와 관련된 장소를 지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두번째 개념은 “영향받는(Affected)” 요소로 “사건을 상적으로 한계짓는” 또는 “시간에 따른 사건 변화의 척도가 되고 그 마지막 점을 표시하는”(Tenny 1987: 17)이라 정의된다.<sup>7</sup> 이는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는” 요소라 정의되었던 전통적인 개념이 갖던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기 위해 제안된 상적 개념이다. 예를 들면 “나는 사과를 먹는다”에서 “먹는다”는 동사가 그리는 사건은 “사과”를 통해서 그 사건진행이 표시된다. 처음에는 사과1개가 존재하나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사과가 1/3, 1/2, 2/3씩 없어져서 마침내 1개 전체가 없어지는 시점을 그 사건이 종결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상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 상태동사의 논항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타동사나 심리사역동사의 목적어 논항이 그 전형적인 경우인데 “Thunder frightens children”에서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가 점차 변화하여 그런 감정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이 사건의 종결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또한 give같은 동사의 목적어로 표현되는 주제와 간접목적어로 표현되는 도달점을 구별해 주는데, 예를 들어 “John gave a book to Mary” 같은 문장에서 “준다”는 술어가 그리는 사건은 “책”이 “John”에게서 “Mary”로 이동하는 것에 의하여 측정된다. “Mary”는 그 이동의 도달점을 표시할 뿐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한편 심리상태동사의 목적어와 비대격동사의

<sup>7</sup> 이런 상적개념은 Vendler (1957), Bach (1986), Wechsler (1991), Krifka (1992), Pustejovsky (1992), Pustejovsky and Bouillon (1995) 등에서도 발견된다. Tenny (1992)는 “endpoint”보다 “measurement over time”이 더 정확한 정의라고 의견을 약간 수정하고 있으나 적어도 본고의 논지를 위해서는 전자가 더 유효하다.

비주어 논항은 영향받는 요소가 아닌데 전자는 상적변화가 없기 때문이며 후자는 반대로 표면상의 주어가 영향받는 요소이기 때문이다(Dowty 1991). 예를 들어 “A car touches the wall” 같은 문장에서 “닿는다”는 사건은 “차”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진행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설명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결정자의 경우 영향받는 요소인가 아닌가는 구별하지 않겠다.

이 두 개념에 따르면 (48)의 경우들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50)	+결정자		타동사, 심리사역동사, 심리상태동사, 비대격동사의 주어
	-결정자	-영향	심리상태동사의 목적어, 비대격동사의 비주어, 내부논항이 두 개인 동사의 비주제역
		+영향	타동사와 심리사역동사의 목적어, 내부논항이 두 개인 동사의 주제역

이제 (51)과 같은 상적층위의 순위가 있고 이 순위에서 하위의 것부터 비핵으로 편입된다고 가정하면 위에서 관찰한 모든 경우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51)의 순위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사건의 발생에 대해 관여하는 참여자가 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 가운데에서는 사건의 진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참여자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는 Grimshaw의 상적층위와 비교할 때 사동주를 보다 포괄적인 결정자란 개념으로 대치하고 비사동주에 대응되는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51) (<+결정자>(<-결정자, -영향>(<-결정자, +영향>)))

이에 따라 앞에서 본 예문들을 분석하면 (52)와 같다. 그리고 순위에 따라 (40)~(44)는 <-결정자> 논항이 (45)은 <-결정자, +영향> 논항이 비핵이 된다.

(52)	주 어	목적어
(40)	<+결정자>	<-결정자, +영향>
(42)	<+결정자>	<-결정자, -영향>
(43)	<+결정자>	<-결정자, +영향>
(44)	<+결정자>	<-결정자, -영향>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45)	<-결정자, -영향>	<-결정자, +영향>

마지막으로 (33)((53)로 반복)에 예시되었던 행위자가 비핵이 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형용사적 수동태의 내부논항으로 볼 근거가 없다. 본고는 Lieber를 따라 이는 동사적 수동태에서 비논항인 by구가 비핵으로 편입된 경우로 분석한다. 그러면 논항만을 설명하는 논항구조의 제약을 더이상 받지 않고 (54)에 예시된 비논항이 편입된 경우들과 같이 설명되어야 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sup>8,9</sup>

(53)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54) well-documented appetite, fast-growing city,  
the top-ranked British team, the three-legged dog,  
a hand-held device, a twice-divorced hippie

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은 같은 설명을 주제역할 개념으로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 경우에도 불포화조건은 독립적으로 필요하고 주제역할의 순위가 낮은 것부터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할 것인데 이때 두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논항을 두 개 취하는 비대격동사의 경우 장소격이 먼저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제역할 순위에서 주제와 장소의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이 두 역할의 상호순위는 이론마다 다른데 Kiparsky (1987)와 Bresnan and Kanerva (1989)는 장소역이 모든 역할 중에서 가장 순서가 낮아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문제는 “flower-arranging in vases” 같이 Grimshaw의 주제역할순위로는 잘 설명되는 예를 오히려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frighten과 please류의 동사들을 (행위자(주제))의 논항구조를 갖는

<sup>8</sup> 이 경우도 부사를 포함한 모든 비논항이 자유로이 비핵이 되는 것은 아니다. (1)처럼 같은 부사가 동사에 따라 보이는 차이도 있고, (2)처럼 Roeper and Siegel (1978)의 용어로 제1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비핵이 될 수 없는 표현들도 있다.

- (1) a. well-rested children  
b. \*well-slept children  
(2) a. \*the faint-growing noise  
b. \*a year-divorced hippie  
c. \*the everywhere-ranging stagecoach

<sup>9</sup> 비논항이 여러개 있을 때 (1), (2)가 보여 주듯이 이들 간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는 듯하다.

- (1) a. well-built                                b. slave-built  
c. well-built by slaves                      d. \*slave-built well  
(2) a. hand-built                                b. factory-built  
c. hand-built in a factory                d. \*factory-built by hand (R & S 1978: 212)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 즉, 이런 동사들의 주어가 행위자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없는 사물들도 자유로이 나올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동작주(Doer)”로서의 원래 정의상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행위자를 “동작주 혹은 사동주”(Bresnan and Kanerva (1989))라 정의한다면 이들을 행위자라 부를 수는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 상적개념으로 주제역을 정의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들 때문에 본고에서는 주제역할보다 위에 본 상적자질에 의존한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5. 결 론

본고에서는 영어의 동사성 복합어를 논항구조이론의 틀 내에서 설명해 보았다. 주제역할과 상적정보 양쪽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Grimshaw 이론에 반대하여 상적정보만을 고려하는 설명이 더 설명력이 높음을 보이려 하였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논항을 두 개 택하는 비대격동사, 심리사역동사, 그리고 행위자가 비핵이 되는 경우 등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소위 표면구조에서 주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복합어의 비핵이 될 수 있으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어성에 의존했던 많은 기존 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복합어 비핵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주어의 의미를 밝히는 것과 같은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전상범 (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서울.
- Bach, E. (1986) 'The Algebra of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5-16.
- Bresnan, J. and J. Kanerva (1989) 'Locative Inversion in Chicheŵa: a Case Study of Factorization in Grammar,' *Linguistic Inquiry* 20, 1-50.
- Di Sciullo, A.-M. and E. Williams (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The MIT Press, Cambridge.
- Dowty, 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547-619.
- Fabb, N. (1984) *Syntactic Affix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Farkas, D. (1988) 'On Obligatory Control,'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27-58.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 Hong, K. (1991) *Argument Selection and Case Marking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Kiparsky, P. (1987) 'Morphology and Grammatical Relations,' ms. Stanford University.
- Klaiman, M. (1988) 'Affectedness and Control: a Typology of Voice Systems,' in M. Shibatani, ed., *Passive and Voice*, 25-84, John Benjamins, Amsterdam.
- Krifka, M. (1992) 'Thematic Relations as Links between Nominal Reference and Temporal Constitution,' in I. Sag and A. Szabolcsi, eds., *Lexical Matters* 29-54, CSLI, Stanford.
- Lee, C.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Lee, K. (1987) 'The Meanings of the Two Passive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3, 185-201.
- Lieber, R. (1983) 'Argument Linking and Compounding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4, 251-286.
- Pustejovsky, D. (1992)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in B. Levin and S. Pinker, eds., *Lexical and Conceptual Semantics* 47-82, Blackwell, Cambridge.
- Pustejovsky, D. and P. Bouillon (1995) 'Aspectual Coercion and Logical Polysemy,' *Journal of Semantics* 12, 133-162.
- Roeper, T. and D. Siegel (1978)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s,' *Linguistic Inquiry* 9, 199-260.
-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The MIT Press, Cambridge.
- Song, S. C. (1988) *Explorations in Korean Syntax and Semantics* (Korean Research Monograph), Center for Korean Studies, Berkeley.
- Sproat, R. (1985) *On Deriving the Lexic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Tenny, C. (1987) *Grammaticalizing Aspect and Affectedness*, Doctoral Dissertation, MIT.
- \_\_\_\_\_ (1992) 'The Aspectual Interface Hypothesis,' in I. Sag and A. Szabolcsi, eds., *Lexical Matters* 1-28, CSLI, Stanford.
- van Oosten, J. (1977) 'Subjects and Agenthood in English,' *CLS* 13, 459-471.
- Vendler, Z. (195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New York.
- Wechsler, S. (1991) *Argument Structure and Linking*,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ABSTRACT

## Verbal Compounds in English

Ki-Sun Hong

English compounds are distinguished into two kinds, root compounds and synthetic verbal ones. The second one refers to a compound whose head is derived by affixation from a verb. This verbal head generally takes the form of a stem plus an affix such as *-er*, *-ed*, *-ing*, and the non-head is interpreted as an argument of the head or a closely related adjunct (ex: truck driver, moth-eaten, fast-acting).

In this paper, I attempt to figure out which element can be the non-heads of verbal compounds in terms of argument structure theory. My starting point is Grimshaw (1990), which assumes two independent notions of thematic roles and causer/non-causer in order to account for them. First, I show her account fails to provide a correct prediction for various cases especially where the head is derived from unaccusatives, psychological causatives, on passives. Rather, I provide an account based on two aspectual notions: a determinant and an affected entity. The former is intended to include a causer, the subject of psychological statives and that of unaccusatives, while the latter picks out the entity marking the aspectual endpoint of an event. I argue that the hierarchical order based on these two notions determines the acceptability of the non-heads of these compounds.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51-742